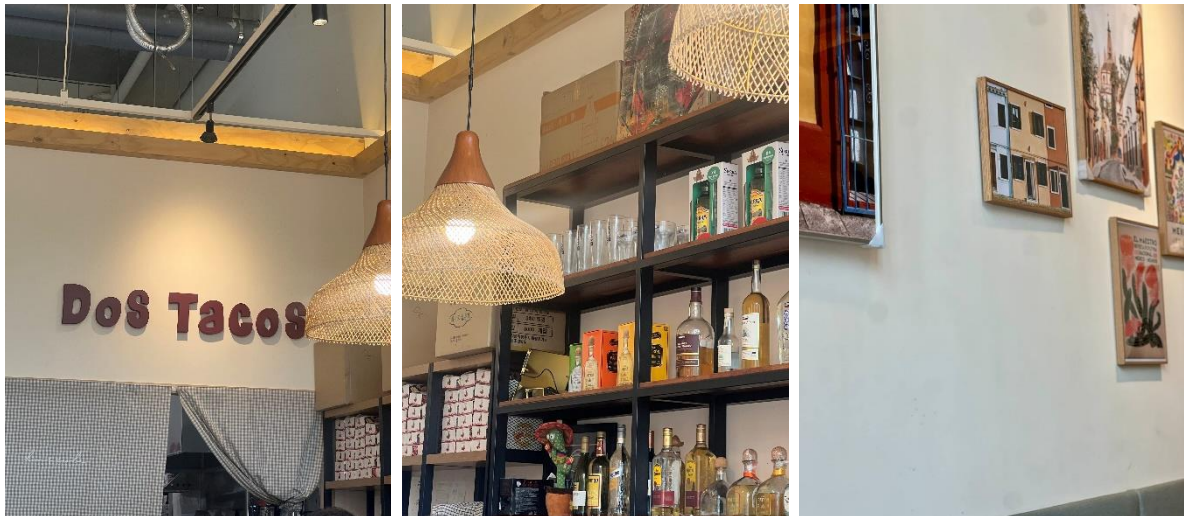


기존에 방문하려고 했던 '살모스231' 오픈일이 미뤄지며,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집을 찾던 와중, 생김지 1년도 안된 청계산입구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스타코스를 발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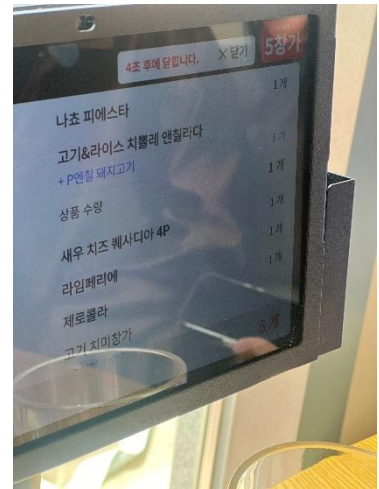
현대차 청계산 시승센터가 있는 자연누리 오피스텔 103호에 위치하며, 계산 후 카운터에 요청하시면 주차 시간을 넣어 주셔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평일 11시 30분부터 22시까지 영업하는데(15-17시 브레이크타임), 미리 예약은 받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 외관/인테리어

입구 옆쪽으로는 테라스석이 있어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부 층고가 높고 1층이라 그런지 채광이 좋아서 밝고, 라탄 조명&의자로 꾸며져 있어 이국적인 느낌이 납니다. 테이블은 4인석 1개와 2인석 테이블이 총 4-5개 되고, 한쪽에는 바 테이블도 있어요. 프리다칼로 그림을 포함해 붙어있는 다양한 액자들에서도 멕시코 느낌 뽐뽐. 컨셉에 진심인 곳입니다!



@메뉴

타코, 퀘사디아, 부리또 등 멕시코 메뉴가 아주 다양했어요.

저희는 여자 넷이서 방문했고 3~4인용 세트 메뉴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각자 먹어보고 싶은 메뉴가 있어 다양하게 주문했습니다. 4조각씩 커팅되어 나오는 메뉴들이 있어 다양한 음식을 쉽게 나누어 맛볼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먹어본 소고기 치미창가! (사진 아래) 튀긴 또띠아에 밥이랑 소고기, 치즈가 한가득 들어가 있어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았습니다. 소스도 살사소스와 사워크림이 동시에 제공되니 취향껏 드시는걸 추천 드려요!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재료들이 올라가 있어 비주얼부터 맛있는 나초 피에스타(사진 위), 바삭한 나초에 야채와 카카몰리를 함께 올려 먹을 수 있어서 맛있었어요.

치미창가와 비슷한 재료가 들어갔지만, 걸면이 부드러운 라자냐 같은 치블레 엔칠라다(사진 오른쪽). 스파이시한 소스가 더해져 음식 맛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남는 음식은 포장이 되는데, 저희는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음식들이 맛있어 깨끗하게 먹고 나왔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양이 적지 않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맛

도 있는 도스타코스, 청계산입구역 점이었습니니다.

+ 도스타코스 청계산점 인근에 Heat+ 결제 가능한 카페들이 있어, 커피 테이크아웃까지 알차게! 점심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